DMZ 내 시범 철수 GP, 폭파 방식으로 철거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최전방 GP 11개씩을 시범 철수키로 한 가운데 15일 한국군이 처음으로 GP 시설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사진) 한국군은 DMZ 내 환경 문제와 작업 인원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폭파 방식 대신 굴착기 사용 방식을 택했으나 일부 작업에 제한이 있어 GP 상부구조물만 폭약(TNT)을 사용해 철거해 왔다.

15일 '뉴스1' 에 따르면 이날 폭파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된 중부전선 GP는 지난 1968년 준공됐다. 1973년 전기가 공급됐고, 2007년 현대화 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날부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중부전선 GP가 철거됨에 따라 이 곳에 설치돼 있던 TOD(열상감시장비)도 철수해 GOP(일반전초) 일대 주요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이다. 이 TOD는 지난 10일 병력과 장비가 철수 하는 날까지 운용됐다고 부대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9·19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북방한계선(MDL)을 기준으로 상호 1㎞ 이내에 있는 GP 각 11개를 시범철수하기로 했고 10일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고 이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북측도 시범 철수 대상 GP의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당국은 남측과 북측이 서로 GP 철거 현황을 상호 통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GP는 역사적 상징성, 보존 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존할 계획이다.

한국군 당국은 GP 시설 가운데 일부는 원형을 남겨 기록 차원에서 보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처럼 향후 역사관, 전시관 등에 보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경우 최전방 GP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강원도 철원 인근 '까칠봉 초소' 를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서며 북한 매체들이 자주 선전해왔던 곳이다.

시범철수 대상 GP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면 남북은 12월부터 상호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군 첫 공중급유기 도착 다음달부터 전력화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한국에 도착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1개월 동안 수락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된다" 고 밝혔다. 수락검사는 각 군이 도입한 장비가 품질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로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예산 약 1조5천억 원이 든다.

A330 MRTT의 기체 크기는 전장 59m에 전폭 60m이며,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전 세계 차세대 급유·수송기 중에서 가장 큰 항공기에 속한다. 연료만 111톤을 실을 수 있고 45톤의 화물도 적재 가능하다.

최대 300여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 수송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공군은 이미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 통제사 등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할 수 있다. F-15K는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 수준이다. 그와는 달리 공중급유기로 1회 연료 공급을 받게 되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여 분으로 늘어난다. 물론 급유에 재급유를 이어간다면 사실상 '무한대' 로 작전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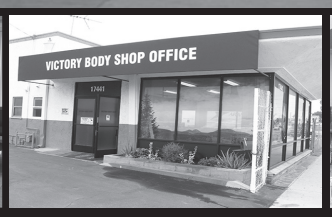
장점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이륙제한중량이 운행제한중량보다 낮다. 운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륙 제한 때문에 중량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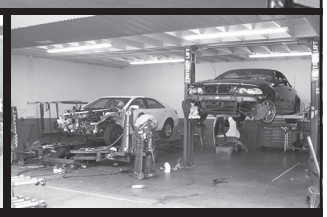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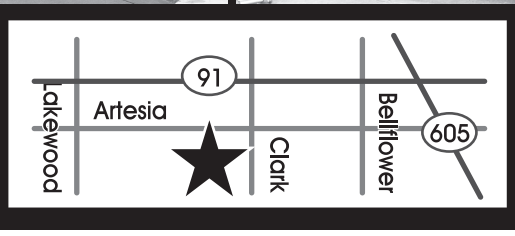
그러나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연료량을 조금 줄이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뒤 일단 이륙하고 이후에 공중급유기를 통해 연료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의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

공중급유기 기종 결정은 2015년 6월 30일에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결정에 대해 "전쟁범죄 행위" 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할지 주목된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